

김유미 연구원

## 요약

미국의 연금시장은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와 금리 상승으로 지수연계형 연금 및 하이브리드 연금, 단기확정금리 연금상품을 중심으로 확대됨. 특히 주가지수 하락 시에도 손실폭을 제한하거나 수익률을 보장하는 상품의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또한 채권금리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금리 상승에 따른 연금수령액 규모 증가로 즉시연금과 장수연금 시장의 성장도 예상됨

- 2022년 1분기 미국의 연금시장은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와 금리 상승으로 전통적 변액연금 판매가 크게 감소한 반면, 주가지수 하락 리스크를 제한하는 지수연계형 연금 및 하이브리드 연금, 단기확정금리 연금 판매가 크게 증가함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주식시장 변동성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두 자릿수 성장세를 보인 전통형 변액연금(Traditional Variable Annuity)의 2022년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함
  - 그러나 연금상품의 수익률이 주가지수에 연동하지만 주가지수 하락 리스크를 제한하는 지수연계형 연금(Fixed Index Annuity; FIA)과 하이브리드 연금(Registered Index-Linked Annuity; RILA)의 2022년 1분기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1%, 5% 증가하였고, 단기확정금리 연금(Multi-year Guaranteed Annuity) 또한 9% 증가함
  - LIMRA는 시중금리 상승이 지속되면서 2022년 연금보험 연간 신규 판매는 2008년 기록(2,650억 달러)을 넘어 사상 최고치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함<sup>1)</sup>
    - 미국 연금보험 신규 판매는 1990년대부터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8년 정점을 찍고 감소세를 보임

〈표 1〉 미국 연금상품별 신규 판매 추이

(단위: 억 달러)

구분	2021. 1Q	2022. 1Q	증가율	시장점유율
전통적 변액연금 (Traditional Variable Annuity)	20.9	18.5	-11%	29.2%
하이브리드 연금 (Registered Index-Linked)	9.2	9.6	5%	15.2%
단기확정금리 연금 (Multi-year Guaranteed Annuity)	14.6	15.9	9%	25.1%
지수연계형 연금 (Fixed Index Annuity)	13.5	16.3	21%	25.8%

자료: U.S. Individual Annuity Sales Survey, First Quarter 2021, LIMRA

1) CNBC(2022. 6. 9), "Annuity sales rise, buoyed by market fears and higher interest rates. What to know before you buy"

- 지수연계형 연금은 채권 이자율 수준의 수익률을 보장하면서 주가지수 상승 시 추가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상품이며, 하이브리드 연금은 투자형 상품이지만 최대 손실폭이 정해진 상품으로 주가지수 하락기에 주목받고 있음
  - 지수연계형 연금은 대부분의 보험료를 채권에 투자하여 채권 이자율 수준의 수익률을 보장하지만 보험료의 일부를 주가지수 연계 상품에 투자하여 주가지수 상승 시 초과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이며, 주가지수가 하락해도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임
  - 하이브리드 연금은 변액연금의 일종이나 주가지수 상승 시 최대 수익률(cap)과 하락 시 최저 수익률(floor)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가지수 하락 시 손실 규모를 제한하는 상품임
  - 지수연계형 연금은 지난 10년간 두 배 이상 성장하며 정액형 연금시장의 46.3%, 전체 연금시장의 25.8%를 차지할 정도로 미국 연금시장의 대표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하이브리드 연금의 경우에도 2018년 이후 판매규모가 3배 이상 증가하면서 변액연금 중 34.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단기확정금리 연금은 3~5년 동안 확정된 이자율과 원리금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최근 금리가 상승하면서 최대 4.30%의 고정이자율을 제공하고 있음<sup>2)</sup>
  - 단기확정금리 연금은 확정금리 지급 기간이 종료되면 연금 또는 일시금을 수령하거나 새로운 상품으로 갱신하는 상품으로, 은퇴를 앞둔 60세 초중반 가입자가 대다수이고 미국 전체 연금시장의 25.1%를 차지함
  
- 한편 금리 인상으로 채권 이자율이 상승하면서 즉시연금(Fixed Immediate)과 장수연금(longevity annuity)의 예상 연금수령액이 크게 증가하면서 관련 시장의 성장도 예상됨
  - 미 연준이 올해에만 기준금리를 4차례 올린 가운데, 기준금리가 0.25%p 인상될 때마다 연금 지급액은 1.5%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sup>3)</sup>, 실제로 2022년 초부터 10만 달러의 일시납 즉시연금에 가입한 사람의 평균 연금수령액은 남성의 경우 11%, 여성의 경우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sup>4)</sup>
  - 80세 이후의 고령에 연금수령을 시작하는 장수연금의 경우에는 적립기간이 길기 때문에 시중금리 상승에 따른 연금 수익률 상승효과가 커지며, 65세 가입 후 85세에 수령하는 경우 연금수령액은 4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2) Yahoo Finance(2022. 5. 25), "Fixed-Rate Annuity Interest Rates Jump"

3) Kiplinger(2022. 4. 6), "Fed Is Raising Interest Rates. How Do Retirees Benefit?"

4) CNBC(2022. 5. 19), "Climbing interest rates mean good news for annuity buyers"